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Hymn 13	다 같 이
기 도	Prayer	남영아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하 2:1-11	인 도 자
설 교	언약은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399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김정순 권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기도회	오전 6시(월-금)
가정교회예배	각 가정교회별로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 회 사 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 역	남관희 집사	안찬호 성도
선 교 사 역	서정길 장로	이오현 집사
미디어 사 역	박종갑 장로	윤지호 집사
실 버 사 역	김상안 집사	김정순 권사
친 교 사 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 역	이오현 집사	안미나 집사
양 육 사 역	Kaitlan Hronek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8년 1월 13일 제76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 금주의 말씀요약 ◘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도 구약과 신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식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꼭 성취되어질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어지지 않을 그리고 꼭 성취될 약속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식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나 응답에 대한 사람의 기대치는 무조건 '지금'입니다. 무조건 '당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는 지금 당장이기 보다는 늘 장차 앞으로 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시간표가 결코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언젠가 꼭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인내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누립니다. 비록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목동이었던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기름부음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은 지 거의 15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말입니다. 다윗은 이날이 오기까지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을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윗이 유다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입니까?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은 지 거의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권은 반쪽짜리였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으로, 그는 헤브론이라는 조그만 땅의 유다의 왕이 된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때 무리하게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스보셋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왕으로만 만족하고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다림이 다윗을 탁월한 왕이 되게 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기다림이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내가 아니라 벼르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시간의 흐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과 시간을 기뻐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과정을 중요시하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목적을 이루는 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공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관점이 없을 때 우리는 과정 속의 실패만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지난 인생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관점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실패를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광야의 15년의 도피생활을 인생의 낭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기에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합시다.**
2. **올해부터 교회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시간만 다르게 진행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장성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신년 가정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일자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박종갑 장로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253-282-1617)**
5. **서애리 집사님이 편지와 함께 십일조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6. **설교 CD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리고 싶은 곳이 있으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설교시리즈도 가능합니다.(축복의 통로, 예수님의 비유, 요나서 강해, 룻기강해, 다윗강해)**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230.00	
감사헌금:	$452.00	
주일헌금:	$60.00	
특별헌금:	$0.00	**합 계: $742.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